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상규



하시모토 만타로라는 언어학자가 유물 사관의 관점에서 세계의 언어 유형을 사용 지역에 매우 세한된 농경민형과 사용 지역이 광활한 유목민형으로 구분하였다.

중세 봉건시대에는 라틴어가 유목민형 언어였다면 20세기 이후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와서는 영어나 스페인어, 일본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소통될 수 있는 유목 민형 언어였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동북아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던 한반도의 우리 말과 글이 한류 열풍과 함께 갑자기 급부상하여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요한 동방의 등불인 나라, 한국의 말과 글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열풍을 끌어들이며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시절 농경민형 언어였던 한국어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목민형 언어로 바뀐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태양'과 '달'을 숭상하는 민족계열이었다. 이러한 민족 문화의 원류는 주자학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기' 철학의 기반을 넓게 되고 또 이러한 이원적

언어 강국, 한국어의 열풍

현재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의 순위와 비슷하다. 곧 우리나라의 세계 12위권의 언어 강국인 동시에 경제 강국이다. 통신과 물류 교류의 폭과 물량이 비교적 적었던 지난 세기의 '미시적 지역주의(micro-regionalism)' 사회였지만 이제는 민족이나 국가라는 경계를 뛰어넘는 폭넓은 문화 교류가 전개될 거시적 지역주의 시대로 이미 진입하였다. 곧 한국이 떠오르는 나라이며, 한국어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말이다.

특히 중국 동북 3성과 중앙아시아와 동 한 과급 효과는 매우 크다. 한류 열풍의 매체가 이러한 대중적 장르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인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는 100대 한류 문화를 지정하여 이를 보급하려는 아심한 계획을 꾸리고 있다.

〈국립국어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화꽃에 담긴 어느 퇴직교사의 헌신과 사랑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다. 교사를 한 지 10년째. 여전히 많은 것을 배워가야 하는 교사다.

아직 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교정은 짧은 여름방학을 끝마치고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의 웃음과 함께 싱그러움이 넘친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 건물 입구에는 아직

피지 않은 수많은 국화꽃 화분이 있다. 시원한 가을이 되면 학생들과 예쁜 국화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화분을 끊임없는 애정으로 돌봐온 분은 아마도 그 모습을 볼 수 없을지 모르겠다.

이 국화꽃 화분들은 이달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교사의 사랑을 받아왔다. 인문계 학교 특성상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다보니 교정에 뭐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냈던 나는 우연히 그분과 산책을 하다가 국화꽃 화분들을 보게 되었다.

"잘보게. 똑같아 보이는 화분들도 분명 다르지? 헛빛을 많이 받고 내 손길을 더 많이 거친 녀석은 아직 꽃을 피진 않았지만 견

강하게 자라고 있어.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입시제도가 중요하고 현실이 냉혹해도 학생들은 사랑을 받아야한다는 걸 잊지 말게!"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직이란 많은 경험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불과 몇년 되지 않아 교사로서의 자만심에 빠졌던 내 모습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다.

요즘 언론에서는 단하루도 교육비리와 교사체벌이 디루어지지 않는 날이 없다. 하지만 묵묵히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애정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교사로서 힘든일이 닥칠때마다 나는 교정에 놓여있는 국화꽃 화분들을 바라볼 것이다.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에 일에 최선을 다하고 떠나시는 선생교사의 뒷모습을 기억하면서...

▲정유선·인터넷독자

분실 예방 위해 CCTV 설치하는 삼막한 도서관

최근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을 보다 휴대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가보니 책이 없어졌다.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았다.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던 책이나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하다하다. 이 틈을 타 책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

도서관 문 앞에 "분실물을 돌려주면 용서해주겠다"는 공지도 심심찮게 나붙을 정도다. 그래서 어떤 도서관에서는 이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곳이 도서관이다. 그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니 삼막하기만 하다.

또 책을 읽으려고 간 도서관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내 일기수 일투족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정말 도서관에 가기 싫어질것 같다.

우리나라 모든 도서관에 CCTV가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물리지각한 사람들, 모두 유념했으면 한다.

▲이아름·광주시 남구 회장동

승객 안전 위협하는 택시안 DMB 시청 자제해야

운전석 옆자리에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결합 네비게이션을 설치한 택시가 많다.

문제는 운전을 하면서 이를 통해 드라마를 시청하는 택시 기사들이 많다는 데 있다. 그러나 가끔 걸려오는 휴대전화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할 경우 안전 운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운전 중 DMB

시청을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택시 운전사들은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데다 장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들보다 훨씬 주의해야 한다.

승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택시 기사들은 DMB 시청을 자제하거나 영업용 택시의 회사 자체적으로 기사들이 DMB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성은·광주시 북구 운암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학원서 주는 상장·부상, 형식만 갖추지 말고 실속있게

얼마전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 아이가 학원에서 '진일보상'이라는 상장과 부상을 받아왔다.

겉보기에 꽤 화려하고 근사해 보였는데, 부상으로 가져온 플라스틱 원형시계를 보고 실망했다. 중국산 시계의 바늘이 각각 떨어져 나가 있었다. 형식만 갖추려고 했던 모양

인데, 아이의 실망도 커다.

학원측이 일부러 그런 상품을 캐울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품을 주려고 했다면 꼼꼼히 신경을 써야 했다. 비단 시계가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공책·가방·도서 상품권 등을 나을 것이다.

▲안효빈·광주시 남구 원산동

글로 연결되는 동북아 지역을 새로운 미래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 한류 과급은 물론이려니와 한국이 보급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50년대 전후 시기에서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에서 설립한 교육 기관을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되었다면 이전 우리가 아시아 저개발 지역에 문화학교를 설립하여 보답을 할 차례이다.

또 이 학교를 통해 한국어는 물론이려니와 한류 문화의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함께 민간 기업에서는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한국어 보급이라는 과제를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국가적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 경제에 대응하는 국가 경영 전략을 설계하지 않는 국가와 기업은 내일이 없다. 민족과 경계를 뛰어넘어 내일의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 신유목민이다. 분명 내일의 큰 희망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함께 희망찬 미래로 향해 달려가자.

〈국립국어원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용하

시중에 회자되는 우스갯 소리중에서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간 아버지가 뜨거운 탕안에 물을 담그고 "어이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어린 아들이 탕속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뜨거운 나머지 밖으로 후닥닥 뛰어나와 한다는 소리가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했다는가?

뜨거운 탕안에서 시원하다고 했으나 어린아들이 활황해 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참으로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도덕성을 강조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없이 비판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자신은 더 데려온 치부를 가

교육부총리님은 어디 계시나요?

리고 있음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실소를 금치 못한다. 또한 우리가 말같지 않은 말에 가치를 부여하고, 진리인양 믿어온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소위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이 없다.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자리가 여려날째 공석이다.

지난 7월 21일 임명되었던 49대 김병준장관이 취임 18일만인 8월 7일퇴임하고 난 뒤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하도 겸종과정이 처열여기는 것은 '教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는가? 교육부장관에다가 부총리겸이라는 말이 더 덧붙여진 것으로 보아서 교육이 중요한 국사라는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우대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 옛 말도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

아마 우리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은 과연 어디 계시나요? <광주풍암중학교장·수필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종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0여일 이상 비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진정 이 나라에는 도덕적으로 흡들이고 정책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대통령께서 김병준 장관이 물려난 다음 날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정책 보고를 듣고 교육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부장관자리를 비워놓고 후임 인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教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는가? 교육부장관에다가 부총리겸이라는 말이 더 덧붙여진 것으로 보아서 교육이 중요한 국사라는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우대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 옛 말도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

아마 우리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은 과연 어디 계시나요?

<광주풍암중학교장·수필가>

[오피니언]

시설

재원 확보 대책없이 '비전 2030' 가능한가

정부가 30일 한국 최초의 중장기 비전 보고서인 '비전 2030'을 내놓았다. 24년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린 원대한 계획이다.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우리나라가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30년대에는 세계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게 된다. 한마디로 '꿈의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을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밀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수립,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조차 반대해 연기된 '비전 2030'은 돈을 없이 내놓은 것도 이상하다. 참여정부의 임기는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적극 나설 리는 없을 것이다.

'비전 2030'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논의조차 못하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각종 친선은 현 정권이 받고 국민들에게는 증세나 국채 발행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주문하고 있지만 엄청난 논란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 대책 서둘러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 앞날이 걱정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지난해 11월1일 기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63개 시·군·구가 초고령사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말 주민등록 통계 기준 초고령사회가 35개 군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화가 얼마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9.3%로 5년 전 7.3%에 비해 2.0%포인트 높아졌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전남은 가장 심각하다. 전남의 고령 인구 비율은 17.7%를 기록,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고 경북(14.4%), 충남(14.3%), 전북(14.2%) 등 3곳이 전남에 이어 새로 고령사회에 진입했

다. 시·군별로는 고흥 31.9, 보성 31.4, 곡성 30.4, 함평 30.1, 신안 29.5, 강진 29.2, 장흥 29.2, 구례 27.8, 진도 27.8, 담양 25.6, 장성 25.3, 완도 25.0, 해남 24.8, 나주시 23.3, 무안 23.0, 영광 21.1% 등이었다.

인구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과정을 끌고 온다. 고령화는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급속한 고령화를 꼽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수단만으로 하루아침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기업과 사회가 적극 관심을 가질 때 고령화에 따른 재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지난 1953년 개봉됐던 할리우드 영화 '난폭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오토바이 족들의 집단 난동 사건을 소재로 했다. 이 영화가 나온 이후 미국에서는 가족집과 차림에 나치 스타일의 헬멧을 쓴 오토바이 난폭족들 이 크게 늘어나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